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5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소집통보일	2025.1.14.(화)		
구 분	이 사	감 사	계
임원정수	9명	2명	11명
재적임원	9명	2명	11명
참 석	6명	2명	8명
불 참	3명	0명	3명

1. 일 시 : 2025.1.23.(목) 14:00 ~ 17:34

2. 장 소 : 조선대학교 본관 2층 법인회의실(2137호)

3. 임원 참석 현황

- 참석 임원

- 이사 : 이사장직무대행 김선아, 이사 임동윤, 이사 이근우, 이사 박상규, 이사 정채웅,
이사 조성철 (이상 6명)

- 감사 : 감사 이현필, 감사 김정호 (이상 2명)

- 불참 임원

- 이사 : 이사장 김이수, 이사 신윤숙, 이사 정병준 (이상 3명)

4. 배석 현황

- 법 인 사 무 처 : 사무처장 정권철, 법인팀장 조은정, 사업운영팀장 고청
(법인팀 윤진혁은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배석함)

- 조 선 대 학 교 : 총장 김춘성, 기획처장 박종락, 교무처장 황석승, 총무관리처장 장삼석, 재정예산팀장 송병준, 전략기획팀장 신용섭

- 조 선 이 공 대 학 교 : 총장 조순계, 기획처장 문인섭, 총무처장 김규철, 기획예산팀장 손용준

- 조선간호대학교 : 총장 박명희, 기획산학처장 최미정, 기획산학팀장 박근홍
- 조선대학교병원 : 병원장 김진호, 기획팀장 김재윤, 기획팀원 이철민
- 조선대학교치과병원 : 병원장 임성훈, 총무부장 김상수, 총무팀장 문우영, 총무팀원 김문수

5. 심의·의결 안건

- (1)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 (2) 조선이공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3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 (3) 조선이공대학교 고정자산 폐기(안)
- (4) 조선간호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 (5) 조선대학교 - 조선간호대학교 간 통·폐합 승인 신청서 제출(안)
- (6)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 (7)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수노동조합, 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 (8)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 (9)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 (10)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
- (11) 조선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
- (12) 조선대학교 고정자산 폐기(안)
- (13) 조선대학교병원 2024학년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 (14) 조선대학교치과병원 2024학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 (15)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제2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 (16) 중·고등학교 교원 임용(안)
- (17)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

6. 보고사항

- (1) 산하학교 교원 임용 보고
- (2) 조선대학교 글로벌대학30 진행사항 보고
- (3)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수익용 기본재산(건물) 취득 보고
- (4) 2025학년도 이사회 개최 일정 보고

7. 회의 내용

■ **성원보고 및 개회 선언** : 정권철 사무처장이 성원을 보고(이사 6명, 감사 2명 출석)하자,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이를 확인하고 「정관」 제32조(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에 의거하여 개회를 선언함

■ **전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 : 정권철 사무처장이 전차 이사회 회의록의 주요 결의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이사들의 의견을 물어 이의 없음을 확인함

1호 의안.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안건 상정 :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손용준 기획예산팀장이 직원노동조합과의 임금 협약 잠정합의에 따라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및 공무원 보수 규정 일반직 공무원 보수표를 준용하여 봉급표를 개정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5년 미만 직원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을 신설하고자 한다며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 ① 정채용 이사가 2024학년도 임금협약 합의안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들을 제시하며 조선이공대학교 총장이 단체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함. 조선이공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지만, 총장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로서 단체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함. 이에 따라 단체 협약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협약서 상단에 학교법인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서명

하고, 아래에 조선이공대학교 총장이 소관 기관장으로서 서명하는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함. 또한, 조선이공대학교뿐만 아니라 조선대학교도 동일한 형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함. 이에 대해 조순계 총장이 학교법인이 총장에게 협상권을 위임한 상황에서 협약서에 법인 이사장의 서명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함. 정채웅 이사는 위임을 받았더라도 법적으로 당사자는 여전히 학교법인이며, 총장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답변함. 단체 협약은 요식 문서로서 형식성을 갖춰야 하며,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당사자 표기 방식을 수정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 ② 임동윤 이사가 과거 이사회의 학사 개입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이사장이 각 학교장에게 임금 협상 권한을 위임하고 학교장의 서명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문제된 적이 없음을 언급함. 또한, 그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안을 지나치게 문제 삼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이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존 관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③ 이근우 이사가 임금 협약안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당사자가 학교법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약의 효력 확보를 위해 이사회 승인 후 법인 명의로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함. 기존 방식과 다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잠정 합의가 완료된 후 공식적인 서명 단계에서만 법인을 당사자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언급함. 조순계 총장이 이에 대해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변함
- ④ 김정호 감사가 법률적으로 정채웅 이사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대학 내부에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함.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접근이 아닌 감정적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함
- ⑤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협약서 형식에 학교법인을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정리하며, 조선대학교 및 산하 기관 전체가 동일한 형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에 대해 임동윤 이사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통일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인사무처가 협약서 양식을 일원화하여 산하기관에 안내

할 것을 제안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은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2호 의안. 조선이공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3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3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손용준 기획예산팀장이 제2회 추가경정자금 예산액 28,523,564천원보다 194,425천원 증액된 28,717,989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① 임동운 이사가 적립금 규모가 346억 원에 달해 재정 상황이 양호해 보이지만 등록금 수입이 유일한 안정적인 재원이라는 점을 지적함. 국고사업비를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등록금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약 85%에 달해 재정 부담이 크다고 분석함. 국고보조금은 영구적인 재원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등록금 인상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총장에게 질의함

조순계 총장이 현재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해 인건비의 25%를 충당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하면 등록금 대비 인건비 부담률이 60% 수준이라고 설명함. 학교 운영이 원활하려면 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율이 65%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다만, 향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후생복지비나 상여금 등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이에 대해 임동윤 이사가 조순계 총장의 재임 기간 동안 많은 국고 지원금을 확보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집행부가 교체될 경우 재정 운영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명함

②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서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작년에 비해 감소했는지 질의하며,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조순계 총장이 인센티브가 약 9억 원 감소했으며, 이는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 평가 방식의 결과라고 설명함. 정량 지표는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로 평가되며, 광주 지역 6개 전문대학과 비교해 순위가 결정됨. 간호대학과 보건대학은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조선이공대학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인센티브가 줄었다고 밝힘. 정성 지표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량 지표 점수가 낮아 종합 순위가 하락했다고 부연함. 이어, 감소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총 10개의 국고 지원 사업을 추가 확보하여 부족한 부분을 충당했으며, 내년에는 평가 지표를 개선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③ 임동윤 이사가 복합문화관 건립이 중단된 이유를 질의하며, 총장의 공약 사항이었음에도 추진되지 않은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함. 이에 조순계 총장이 당초 학교 기금과 동창회 기금으로 추진될 계획이었으나, 동창회의 자금 조달이 지연되면서 펀드 조성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함. 또한, 초기 예상보다 공사비가 크게 증가했고, 일부 구성원들의 반대도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밝힘.

임동윤 이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공약 이행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조순계 총장은 예산과 내부 반대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대신 역사 전시실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답변함.

④ 조성철 이사가 기금 인출 14.5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용도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 표기를 요청함. 손용준 기획예산팀장이 기금 인출 내역이 기존 1차·2차 추경에서 반영된 부분이 있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하며, 세부 내역을 구두로 보고함. 사용 계획으로는 △글로벌 융합학부 강의실 및 학과실 구축(1억)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비(2억) △장학기금(6억) △퇴직기금 명예퇴직 수당(1.7억) △퇴직수당 법정 부담금(8천만 원) △학생복

지기금 중 기숙사 사생실 비품 구입비(3억) 등 총 14.5억 원이라고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이공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3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28,717,989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함

3호 의안. 조선이공대학교 고정자산 폐기(안)

안건 상정 :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조선이공대학교 고정자산 폐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김규철 총무처장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제32조(대손상각등)에 따라 사용연한 초과한 기자재 및 비품 (보통선반 외 76점)에 대해 폐기하고자 한다며 폐기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이공대학교 고정자산 폐기(안)은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고정자산 폐기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4호 의안. 조선간호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조선간호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최미정 기획산학처장이 제1회 추가경정자금 예산액 11,185,237천원보다 233,919천원 증액된 11,419,156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임동운 이사가 제3교사 건축 진행 상황을 질의하자, 박명희 총장은 철거 과정이 예상보다 지연되어 현재 약 20% 정도 진행된 상태이며, 지하 공간은 조성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8월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에 대해 임동윤 이사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및 재료비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며, 예산 부담 증가에 대한 걱정을 표명함. 또한, 작년 이사회에서 보고된 등록금 연차적 인상 계획과 달리 올해 등록금이 동결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질의함.

박명희 총장이 교육부에서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한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인건비 지출 가능 비율을 기존 25%에서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설명함. 이에 대해 최미정 기획산학처장이 등록금 인상을 통한 재원 확보보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인건비 활용 비율을 높이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였다고 추가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간호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11,419,156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함

보고사항 1. 산하학교 교원 임용

보고사항 상정 :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산하학교 교원 임용 보고를 상정함

보고 내용 : 박명희 총장과 조은정 법인팀장이 「정관」 제40조(임용) 등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교원을 임용하였다며 임용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함

- 조선간호대학교 재임용 : 조교수 안민권 외 1명
-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복직 : 교사 김미애

결의사항 : 산하학교 교원 임용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함

5호 의안. 조선대학교 - 조선간호대학교 간 통·폐합 승인 신청서 제출(안)

안건 상정 :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조선대학교 - 조선간호대학교 간 통·폐합 승인 신청서 제출(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박종락 기획처장이 조선대학교 - 조선간호대학교 간 통합 일정 및 세부추진 사항, 대학 통합 세부 원칙에 대해 보고하고 양 대학 간 통·폐합 승인 신청에 앞서 이사회 심의를 받고자 한다며 통·폐합 신청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① 박상규 이사가 조선대학교와 조선간호대학교 통합 후 조선간호대학교 교수들의 직급, 보수, 교수 평가 등이 적절히 보전되었는지 질의하며, 통합 과정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박종락 기획처장이 신분과 인사에서 차별이 없도록 합의했으며, 급여와 경력 인정 방식에 대한 여러 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함

박상규 이사가 경력 산정 기준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적용하기보다 조선대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양보하여 통합이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함. 이에 박종락 기획처장이 승진 및 재임용은 기존 직급을 유지하며, 부교수를 예시로 들어 임용 기간 중 일정 기간은 조선간호대학교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선대학교 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함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조선간호대학교 교수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질의하자, 박종락 기획처장이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계속 논의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답변함

② 황석승 교무처장이 조선간호대학교 교수들의 신분과 인사 이동은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 과정에서 교수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함. 일부 교수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힘. 이에 박상규 이사가 통합 후 교수 평가와 연구 활동에 대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황석승 교무처장이 승진 유예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이는 일부 교수들에게 불리할 수 있어 능력이 되는 경우 즉시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함.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방안

을 계속 논의 중이라고 강조함

- ③ 임동윤 이사는 조선대학교와 조선간호대학교의 통합이 중요한 결정임을 강조하며, 이를 원활하게 진행한 박명희 총장에게 감사를 표함. 과거 조선간호대학교가 독자 생존을 고려했던 점을 언급하며, 통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조선간호대학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협상 단계에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김춘성 총장이 조선간호대학교가 독립적으로도 경쟁력이 높은 기관임을 인정하며, 통합이 이루어지면 호남 지역 내 최고의 명문 간호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함

박상규 이사가 통합 과정에서 두 대학 모두 취업률과 입학률이 높아 통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인정하며, 조선대학교가 넓은 시각에서 양보하고 교수들의 보수와 연구 실적 보장을 철저히 한다면 양 대학의 통합이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함

- ④ 정채웅 이사가 조선대학교와 조선간호대학교의 통합 후 입학 정원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질의하며, 입학 정원이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함. 박종락 기획처장이 간호대학은 기존 4년제 체제를 유지하며, 간호대 정원 152명과 간호학과 정원 80명이 합쳐져 전체 정원이 증가한다고 설명함. 박명희 총장이 정원외까지 포함하면 총 300명 규모로 확대되며, 이는 조선대학교의 입학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지역 내 보건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앞으로도 증원이 더욱 유리할 수 있으며, 조선대학교 간호대학이 광주·전남 지역 내 보건계열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함

기타 논의사항: 임동윤 이사가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통합 운영에 대한 내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학과 배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특히 경찰행정학과가 법사회대학이 아닌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해당 학과를 원래 소속인 법사회대학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김춘성 총장이 단과대 신설은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하에, 기존 단과대학 범위 내에서 학과 배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함.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에 남은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는 적절한 단과대학으로 이동하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임동윤 이사가 학과 배치는 원칙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자, 김춘성 총장이 이를 반영해 조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 조선간호대학교 간 통·폐합 승인 신청서 제출(안)은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조선간호대학교 간 통·폐합 승인 신청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6호 의안.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안건 상정 :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박종락 기획처장이 그간의 교섭 경과를 보고하며, 2024년 9월부터 2024년 공무원보수규정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와 근속 가봉’을 적용한 교원 기본급 2.5% 인상, 5년 미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신설, 명예퇴직수당 및 초과강의료 등을 포함한 교원노동조합과 잠정 합의한 내용을 설명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협약 체결을 위해 임금협약(안)을 제청하고자 한다며, 제청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 ① 정권철 사무처장이 1호 의안.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에서 논의한 대로, 정채웅 이사의 제안에 따라 임금 협약의 정식 체결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소관 기관장인 총장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조선대학교 측에 설명함. 또한, 각 기관에 이를 통일된 양식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힘
- ② 임동윤 이사가 명예퇴직 수당 지급률이 기본급의 85%에서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5학년도에는 70%로 조정되는 것이 합의된 사항인지 질의함. 박종락 기획처장이 기존 85%에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합의되었다고 보고함. 임동윤 이사가 교수와 직원의 명예

퇴직 수당 지급 기준이 동일한지 추가로 질의하자, 박종락 기획처장이 교수와 직원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함. 임동윤 이사가 과거 교원과 직원 간 지급률 차이가 있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동일하게 조정된 점을 확인하고 문제없음을 확인함
정권철 사무처장이 조선대학교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기준 확정에 따라 산하기관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임을 보고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은 출석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 합의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7호 의안.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수노동조합, 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안건 상정 :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수노동조합, 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박종락 기획처장이 그간의 교섭 경과를 보고하며, 2024년 9월부터 기본급 인상, 재임용 횟수에 따른 기본연봉표 신설, 강의책임시수조정 등을 포함한 교수노동조합, 교육중심교원 노동조합과 잠정 합의한 내용을 설명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협약 체결을 위해 임금 협약(안)을 제청하고자 한다며, 제청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수노동조합, 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은 출석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수노동조합, 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 합의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8호 의안.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안건 상정 :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박종락 기획처장이 2024학년도 교원노동조합 및 교수노동조합(교육중심교원 노동조합 포함)과의 임금 협약 합의 내용을 보수 규정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 (안)은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9호 의안.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박종락 기획처장이 제1회 추가경정자금 예산액 254,691,921천원보다 5,517,710천원 증액된 260,209,631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 ① 박종락 기획처장은 올해 본예산 편성 시 의과대학 사태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함. 의과대학은 6년 과정이므로 정상적으로는 12학기분의 등록금이 유입되어야 하지만, 올해는 신입생 등록금인 한 학기분만 수납될 것으로 예상됨을 밝힘. 이에 따라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적립 예정인 퇴직기금 21.27억 원과 특정 목적 기금 7.62억 원은 적립하되, 다음 학년도에 재정 운영을 위해 즉시 활용될 방침임을 설명함
- ② 임동윤 이사가 적립금이 30억 가량 증가한 것이 신규 유치된 기부금이 아니라 이자 수익을 재적립한 결과임을 지적하며, 총장이 취임 전 기부금 유치 목표를 세웠는지 질의함. 또한, 현재 기부금 증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적극적인 모금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총장 취임 이후 외부에서 유입된 순수 기부금 규모를 질의함. 김춘성 총장이 그간 기부금 관리가 부족한 면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수도권 동창회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부 유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함. 기부금 증대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함

③ 박종락 기획처장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추경 예산의 수정을 요청함

수정 전 : 수입·지출 총액 각각 260,209,631천원

수정 후 : 수입·지출 총액 각각 262,274,896천원 (수입·지출 각각 2,065,265천원 증액)

이사 전원이 현재 상황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의결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262,274,896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수정하여 가결함



보고사항 2. 조선대학교 글로벌대학30 진행사항 보고

보고사항 상정 :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조선대학교 글로벌대학30 진행사항 보고를 상정함

보고 내용 : 박종락 기획처장이 글로벌대학30 추진현황, 광주광역시 자문위원 컨설팅 주요 의견 및 글로벌대학30 혁신기획서 요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함

논의사항 :

①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광주시가 지원할 재정에 대해 전남대학교와 차등 지원하는 경우, 조선대학교가 불리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지원액이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함. 과거 전남대학교가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은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차등 지급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함. 박종락 기획처장이 광주시 측에 동일한 지원을 요구했다고 보고하며, 광주시에서 지원액을 동일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함.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신청서 제출 시점에서 지원액이 변동할 수 있음을 염려하며,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② 임동윤 이사가 작년 글로컬대학30 준비과정에서 조선이공대학과의 통합을 합의했으나, 올해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글로컬대학 사업은 기본적으로 대학 수를 줄이고자 하는 교육부의 정책이므로 통합 대학을 늘리는 것이 글로컬대학30 선정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발언함. 김춘성 총장이 구성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학 간 통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통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 선정에 있어 오히려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함.

임동윤 이사가 작년 조선이공대학과의 통합 추진 시 조선대학교 공과대학과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통합은 MOU 제출 후 몇 년을 두고 진행되므로 협의의 진행과 계획 수립을 할 시간이 충분함을 강조함

박종락 기획처장이 통합 신청서 제출 기한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요구 사항을 설명하며, 조선간호대학교와의 통합을 우선 진행한 뒤 조선이공대학과의 통합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하고 통합이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 및 양 대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함. 임동윤 이사가 원광대학교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하며,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와 조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③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학내 갈등에 대해 교육부가 우려를 표할 것이라고 지적함. 글로컬대학30 신청서 제출 기한인 3월까지 상황을 개선하여, 내부 화합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함. 박종락 기획처장이 교육부 국장과 면담한 내용을 보고하며, 내부 화합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함
- ④ 조성철 이사가 갈등 해소를 위해 법인 이사회와 범대위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⑤ 임동윤 이사가 총장이 글로컬대학30 선정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이어 현 학내 갈등 사태의 중심에 이사장이 있으며, 범대위와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함, 또한, 과거 민주동우회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역할을 언급함

⑥ 조성철 이사가 지역 연계 도시 캠퍼스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함. 김춘성 총장이 국회 및 지역 주요 인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캠퍼스 구축을 위한 기부와 자금 조달을 진행 중임을 보고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학생 교육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함

결의사항 : 조선대학교 글로컬대학30 진행사항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함

10호 의안.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

안건 상정 :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황석승 기획처장이 「정관」 제40조(임용)에 따라 당연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 1명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인사 규정 제51조(당연 퇴직)에 따라 면직임용 제청하고자 한다며 제청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 면직 임용(사망 면직) : 법사회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광서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은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11호 의안. 조선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

안건 상정 :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조선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황석승 교무처장이 「교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요구) 등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교원 징계를 제청한다며 제청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 징계 제청 :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교수 김권천 외 1명

논의사항 :

- ①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징계대상자가 인정하지 않은 비위 행위가 일부 존재함에도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자, 김정호 감사가 이사회에서는 징계 회부 여부를 결정할 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양정 등을 결정한다고 설명함
- ② 임동윤 이사가 병원 내에서 일어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본인이 확인한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며, 해당 사건이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발언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은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12호 의안. 조선대학교 고정자산 폐기(안)

안건 상정 :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조선대학교 고정자산 폐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장삼석 총무관리처장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제32조(대손상각등)에 따라 노후, 고장, 수리 불가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교육, 연구, 행정 업무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품목을 폐기하고자 한다며 폐기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고정자산 폐기(안)은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고정자산 폐기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추가 보고사항: 김춘성 총장이 메스컴에 보도된 체육실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실에서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 중임을 보고함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16시 40분에 정회를 선언함>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함>

13호 의안. 조선대학교병원 2024학년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조선대학교병원 2024학년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김진호 병원장이 본예산액 402,227,027천원보다 51,386,383천원 감액된 350,840,644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이어, 세출 과목간 조정이 필요하여 조선대학교병원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수정 (예산 총액은 변동 없음)을 요청함

논의사항 :



- ① 김선아 이사장 직무대행이 환자 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언급하며, 전공의 급여 미지급 부분이 재정 적자 축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함. 이에 김진호 병원장이 환자가 약 20% 감소했으나 수입 감소가 크지 않은 사유를 설명함. 병동 축소로 인해 간호 인력을 PA 간호사로 전환하고, 임시직 계약 종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약 90명의 인력을 감축하며 예산 지출을 최소화했다고 밝힘. 또한,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참여를 통해 정부 지원금 지원금 70억원과 의사 당직비 지원 40억원 등 총 110억원을 확보하여 적자 폭을 줄였다고 설명함
- ② 임동윤 이사는 전공의 급여 미지급이 병원의 적자 폭 감소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향후 급여 지급이 재개될 경우 약 130억~150억 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고 언급함. 또한, 환자 수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와 맞물리면 병원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함. 아울러, 의료 분쟁 비용이 총 13억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 분쟁 증가의 원인과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함

이에 이에 김진호 병원장은 의료 분쟁의 빈도와 금액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소송 규모가 기존 1~2억 원 단위에서 십억 원 이상으로 커졌다고 설명함. 또한, 최근에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은 의료 분쟁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일부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대학병원의 특성상 의료진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명백한 과실이 없는 한 개별 의료진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법정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추가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병원 2024학년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350,840,644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수정하여 가결함

14호 의안. 조선대학교치과병원 2024학년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조선대학교치과병원 2024학년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임성훈 병원장이 제1회 추가경정자금 예산액 27,779,650천원보다 454,050천원 감액된 27,325,600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이어, 세출 과목간 조정이 필요하여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수정 (예산 총액은 변동 없음)을 요청함

논의사항 :

- ① 이현필 감사가 치과병원 증축 계획이 취소되고 리모델링으로 전환된 후에도 다시 연기된 점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된 장기적인 사업 계획과 향후 구상에 대해 질의함. 임성훈 병원장이 치과병원이 현재 위치로 이전한 지 20여년이 경과했으며,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함. 다만, 리모델링 범위와 시설 변경 측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획이 연기되었다고 밝힘

② 임동윤 이사는 치과병원의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이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또한, 환자 수 감소와 인건비 증가가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병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아울러, 치과병원이 조선대학교병원과 달리 임상교원 인건비를 전부 부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대학병원의 의사들과 동일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구조가 병원의 재정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함. 이에 대해 신임 병원장의 대응 방안이 있는지 질의함

임성훈 병원장이 병원이 설립된 지 24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었으며, 환자 만족도 제고와 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함. 또한, 수익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3년 전 조선대학교병원의 정책을 따라 의료진의 진료 시수를 감소시킨 점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수입 감소가 있었다고 분석함.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 시수를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학회 출장 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보강 진료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이에 김선아 이사장 직무대행이 보강 진료와 관련하여, 학회 출장으로 인해 기존 진료 일정이 조정될 경우, 이를 앞뒤로 조정하는 방식 외에 토요일 등 추가 진료를 계획할 수 있는지 질의함. 임성훈 병원장이 의료진에게 출장 후 추가 진료를 요청할 방침이나, 내부에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고 설명함

③ 임동윤 이사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입장에서 대기 시간이 과도하게 길다고 지적함. 특히, 환자들이 병원의 긴 대기 시간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대기 시간이 길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설명함. 환자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④ 김선아 이사장 직무대행이 병원 리모델링 착공 일정에 대해 질의하자 임성훈 병원장이 올해 8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함. 이어 김선아 이사장 직무대행이 차세대 의료 정보 시스템 도입 시점을 질문하자, 임성훈 병원장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타 병원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결과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여 약 10년간 추가로 활용하는 방향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함. 비용 절감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덧붙임. 김선아 이사장 직무대행이 기존 의료 정보 시스템을 개선해 사용할 수 있다면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며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치과병원 2024학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27,325,600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수정하여 가결함

15호 의안.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정권철 사무처장이 2023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중 일반업무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 7,965,097천원보다 5,482,083천원 감액된 2,483,014천원, 수익사업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 4,114,057천원보다 971,311천원 감액된 3,142,74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조선대학교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수정에 대응하여 법인 일반업무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한다며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수정 전 : 일반업무회계 수입·지출 총액 각각 2,483,014천원

수정 후 : 일반업무회계 수입·지출 총액 각각 6,190,600천원 (수입·지출 각각 3,707,586천원 증액)

논의사항 :

- ① 조성철 이사가 의약품 합작 도매법인 설립과 관련한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청하자, 정권철 사무처장이 의약품 도매업 관련 사항을 설명함. 현재 해당 사안이 범대위에서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청구한 10가지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또한, 2월 중 교육부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을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입찰 선정업체와 협상단 간 논의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진

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 ② 임동윤 이사가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계속 감소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현재 법인의 주요 수입원이 어디인지 질의함. 이에 정권철 사무처장이 법인의 가장 큰 수입원은 OO백화점 주차장 임대료라고 밝히며, 해당 임대료 계약 사항에 대해 설명함. 또한 OO백화점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인사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함. 임동윤 이사가 시중에서 OO백화점 철수설이 돌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법인의 주요 수입원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를 통한 인건비 지급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함. 또한, 서석동 상가 신축 사업의 경우에도 임대가 원활히 이루어질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며, 운영비 증가와 인력 증가 문제를 고려해 비용 절감과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에 정권철 사무처장이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해당 백화점과 관련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변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제2회 추가경정지급예산(안)은 출석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일반업무회계 수입·지출 총액 각각 6,190,600천원, 수익사업회계 수입·지출 총액 각각 3,142,746천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함

보고사항 3.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수익용 기본재산(건물) 취득 보고

보고사항 상정 :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수익용 기본재산(건물) 취득 보고를 상정함

보고 내용 : 고청 사업운영팀장이 2024년 제9차 이사회(2024.10.24.)에서 학교법인 소유 수익용 토지의 사용료 채권을 회수하는 대신, 토지 점유자의 건축물을 취득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취득 완료하였음을 보고함

결의사항 :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수익용 기본재산(건물) 취득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함

16호 의안. 중·고등학교 교원 임용(안)

안건 상정 :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중·고등학교 교원 임용(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조은정 법인팀장이 「정관」 제40조(임용) 등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임용하고자 한다며 제청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하다.

- 면직 :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교장 김연희 외 1명
- 교장 승진 및 전보 :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교감 채현석 외 1명
- 교감 승진 및 전보 :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교사 전남주
- 전보 :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교사 이나현 외 9명

논의사항 : 정채웅 이사가 사립학교법상 학교장이 인사를 제청하면 이사회에서 이를 검토하는 절차가 맞는지 질의하자 정민철 사무처장이 법인 산하에 4개 중·고등학교가 있어 학교장 단독 제청만으로 인사가 결정되지 않으며, 사전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특히,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법인이 학교장들과 협의를 거쳐 상호 조율한 후 인사를 진행한다고 답변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중·고등학교 교원 임용(안)은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중·고등학교 교원 임용 내역'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보고사항 4. 2025학년도 이사회 개최 일정 보고

보고사항 상정 :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2025학년도 이사회 개최 일정 보고를 상정함

보고 내용 : 조은정 법인팀장이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이사회 추진 일정에 대해 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확정하고자 한다며 주요 추진 일정을 보고함

결의사항 : 2025학년도 이사회 개최 일정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함

17호 의안.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

안건 상정 :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정권철 사무처장이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로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 이근우 이사, 정채웅 이사를 선정하기로 하였다며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은 출석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 이근우 이사, 정채웅 이사가 날인하기로 가결함

폐회 선언



폐회 선언 :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이 더 이상의 질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함

【결 의 사 항】

1.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은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2. 조선이공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3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28,717,989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3. 조선이공대학교 고정자산 폐기(안)은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고정자산 폐기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4. 조선간호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11,419,156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5. 조선대학교 - 조선간호대학교 간 통·폐합 승인 신청서 제출(안)은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조선간호대학교 간 통·폐합 승인 신청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6.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은 출석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 합의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7.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수노동조합, 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은 출석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수노동조합, 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 합의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8.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은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9.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262,274,896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수정하여 가결하다.
10.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은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1. 조선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은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2. 조선대학교 고정자산 폐기(안)은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고정자산 폐기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3. 조선대학교병원 2024학년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350,840,644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수정하여 가결하다.
14. 조선대학교치과병원 2024학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27,325,600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수정하여 가결하다.
15.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일반업무회계 수입·지출 총액 각각 6,190,600천원, 수익사업회계 수입·지출 총액 각각 3,142,746천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다.
16. 중·고등학교 교원 임용(안)은 출석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중·고등학교 교원 임용 내역’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7.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은 출석이사 6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김선아 이사장직무대행, 이근우 이사, 정채용 이사가 날인하기로 가결하다.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함.

2025. 1. 23.

이사장 직무대행	김선아	김선아
이 사	임동윤	임동윤
이 사	이근우	이근우
이 사	박상규	박상규
이 사	정채웅	정채웅
이 사	조성철	조성철
감 사	이현필	이현필
감 사	김정호	김정호